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의 효과: 융합적 교육방법 적용

최명희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Effects of Online Communication Courses: Application of Convergent Education Method

Myeong-Hui Cho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단일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며, 1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각 100분, 총 13회의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은 온라인 수업 이후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능력, 온라인 수업,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online communication courses using role-play and group activities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and relationship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research design was a one-group pretest-posttest quasi-experimental study, and a total of 13 communication classes for 100 minutes each were conducted for first-year nursing students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20.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and relationship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had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online clas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effects of classes in communication subjects applying various teaching methods to nursing students through online education platform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Relationship Competence, Online Classes,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efficac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직종과의 협력관계 및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문

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간호중재의 한 형태로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을 적용한다[1,2].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제시한 일곱 가지의 간호사 핵심역량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며, 평가원은 각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과별로 하여금 교육과

정을 통해 해당 간호대학생들이 적절한 수준의 치료적 의사소통술을 적용할 수 있는 학습성과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1]. 따라서 대부분의 간호교육기관은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인 저학년 시기에 간호대학생들이 효율적인 또는 치료적인 의사소통을 체득하여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3].

반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교과목들은 대개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강의 위주의 교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4]. 의사소통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안에서 실질적으로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상황을 경험하고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간호대학생 대상의 의사소통 교과목에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하고 있다[3,4]. 집단활동을 이용한 수업을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4]. 집단활동과 역할극을 모두 활용한 수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3].

선행연구들에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비단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와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졸업 후 전문직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5]. 간호대학생들은 추후에 전문직 간호사로서 대상자들의 문제와 요구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적 의사소통을 사용해야 하고, 임상환경에서 타 직종의 관계인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각 간호교육기관들은 학부과정에서 재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6].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7], 나아가 전문직관에 대한 예측요인이었다[8]. 자기효능감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적 행동 이행 가능성과 관련한 자신감 정도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전공학습, 임상실습 및 간호실무 역량과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8]. 한편, 간호사는 대상자, 보호자 및 의료진들과 같이 간호현장에서의 수많은 대인관계 속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신규간호사들의 주요 이직요인이 대인관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으므로, 학부 시절 대인관계능력 함양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소통 교과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현장에서의 간호실무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깊

은 관련성을 보이며, 각 간호사들이 갖춘 이러한 요소들이 대상자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중요하므로 학부시절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 교과목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교과목도 온라인 방식의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온라인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의 수업과 마찬가지로 학습목표를 달성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학습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수업방식에 접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에서도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포함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오프라인 수업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10]. 따라서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간호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적용하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온라인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 교과목의 온라인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교과목을 수강한 실험군에 대한 단일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군은 총 96명이며, G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내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으로 2020년 2학기에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전원이 다. 중도탈락 및 불성실한 응답 등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는 없었으며, 최종 분석에 96명 모두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효과크기 .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하였을 경우, 단일군 t-test를 위한 최소표본수는 45명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교과목 수강생 1학년 전원인 9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본 연구는 검정력 확보를 위한 연구대상자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Hur [11]가 개발한 포괄적인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ICC;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노출, 주장력, 사회적 적절성 등의 의사소통능력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72였고[1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1이었다.

2.3.2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et al. [12]이 개발하고 Jung [13]이 수정·보완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국내 연구에서 수정·보완 당시 Cronbach's α 값은 .86이었고[13],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2.3.3 대인관계능력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 대인관계능력은 Guerney [14]이 개발하고 Chang [15]이 수정·보완한 대인관계 변화 척도(RCS;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척도는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등의 6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은 .89였고[1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3이었다.

2.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2020년 1학년 2학기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2학점 교과목 온라인 수업이다. 총 13 회기의 수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3일부터 12월 10일 까지 주 1회, 회기당 100분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를 두 개의 분반으로 각 50명과 46명으로 나누어 한 명의 담당교수가 동일한 내용과 방법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내용은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과 관련한 이론, 성격유형검사, 자기분석을 비롯하여 치료적 관계 및 의사소통을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직접 시연하는 집단활동과 역할극으로 구성하였다.

온라인 수업의 플랫폼은 G사의 수업관리 전용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강의는 담당교수가 실시간 또는 사전 영상 녹화로 직접 시행하였다. 실시간 수업은 수업관리 시스템 내 화상회의 도구를, 녹화 영상강의는 디지털 영상물 시청 수강 도구를 이용하였다. 집단활동과 역할극은 화상회의 도구를 분반별 또는 집단별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역할극의 주제는 '효율적 의사소통'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비효율적 의사소통 상황을 효율적 의사소통 상황으로 변환하는 내용이었다. 최종적으로 12 회기에 집단별 역할극을 발표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7 회기부터 11회기까지 총 5회기, 매회 50분 동안 집단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때 집단별로 화상회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들은 치료적 또는 효율적 의사소통에 관하여 학습을 진행하고, 역할극 주제 선정, 시나리오 작성 및 시연 연습 등을 수행하였다. 각 집단은 5~6명으로 구성하였고, 집단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담당교수는 수업 화상회의에서 대기하며 각 집단별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응하였다. 역할극 발표는 12회기 실시간 수업을 통해 분반 구성원 모두 참석하여 집단별로 순서를 정해 진행하였고, 실시간 시연 또는 사전녹화 영상 상영의 두 가지 형태 중 집단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발표하였다.

사전조사는 9월 3일 1회기에, 사후조사는 12월 10일 13회기에 실시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교과목 오리

엔테이션 시간에 연구자는 대상자들에게 온라인 수업 효과성 측정의 목적, 절차 및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였고,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수업관리 시스템 내 설문지 도구를 이용하여 응답을 받았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tents of Online Classes in Communication Subject

Session	Contents	Tools
1	- Orientation & Course introduction - Pretest	- Video meeting - Online Survey
2	- Lecture: self-concept and values - Individual activities: self-concept, self-esteem, body-esteem questionnaire	- Video meeting
3	- Lecture: personality and defense mechanism	- Video meeting
4	- Lecture: developmental theories	- Recorded video
5	- Lecture: self-understanding - Workshop: Johari's window and Enneagram	- Recorded video - Video meeting
6	- Workshop: MBTI and Holland	- Video meeting
7	- Lecture: efficient and therapeutic relationships - Group activities	- Video meeting
8	- Lecture: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 Group activities	- Video meeting
9	- Lecture: assertive communication - Group activities	- Recorded video - Video meeting
10	- Lecture: efficient and therapeutic communication - Group activities	- Recorded video - Video meeting
11	- Lecture: inefficient and non-therapeutic communication - Group activities	- Recorded video - Video meeting
12	- Role-play	- Video meeting
13	- Lecture: communication in clinical practice - Posttest	- Recorded video - Online Survey

2.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한 후, 실험처치의 효과성 검정을 위해 연구변수들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 평균값의 차이를 확인하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모두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으로, Table 2와 같이 이들의 평균 연령은 18.9 (SD: 0.8)세였다. 이 중 남성은 31명(32.3%)이었고, 여성은 65명(67.7%)이었다.

3.2 실험처치의 효과성 검정

본 연구의 실험군에게 제공한 실험처치의 효과성을 검정하기 위해 종속변수 점수의 평균값에 대해 중재 전·후 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4.1점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4.47, p<.001$).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3.8점 상승하였고($t=2.77, p=.007$), 대인관계능력의 점수는 2.5점 상승하여($t=2.01, p=.047$) 모두 실험처치 전·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96)

Variables	Categories or Min-Max	n (%) or M \pm SD
Age	18-22	18.9 \pm 0.8
Gender	Male	31 (32.3)
	Female	65 (67.7)

Min: Minimum; Max: Maximum;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able 3. Testing the Effectiveness of Experimental Treatment

(N=96)

Variables	Pretest	Posttest	Mean difference (MD)		
	M \pm SD	M \pm SD	MD of post-pre	t	p
Communication competence	56.9 \pm 6.3	61.0 \pm 7.1	4.1	4.47	<.001
Self-efficacy	63.0 \pm 9.4	66.8 \pm 9.7	3.8	2.77	.007
Relationship competence	69.2 \pm 8.0	71.7 \pm 9.4	2.5	2.01	.047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1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 교과목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 후 그들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화상회의, 디지털 영상물 시청 및 온라인 설문지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수업 내용은 기존의 이론적 내용의 강의와 워크

습 위주의 구성에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온라인 의사소통 수업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이 중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가장 크게 향상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4.1점 상승을 나타냈다($t=4.47$, $p<.001$). 동일한 측정도구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교과목 효과를 측정한 연구[3]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1.5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2.43$, $p=.017$).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간호대학생 1학년에게 집단활동과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을 적용하였다.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자기이해를 늘리고 직접적 의사소통술 연습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제시한 선행연구[3,16]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에서 강의, 개별활동과 워크숍을 통해 자기이해를 강화하고, 집단활동과 역할극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의사소통 기술을 체험하고 적용해 본 경험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 의사소통 수업은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이는 오프라인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의 효과성을 측정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3,4]. 대인관계능력 향상은 집단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교과목을 통해 익힌 의사소통 기술을 실제 집단활동에서 사용하는 기회를 접하게 되어 나타나는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4].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17],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수업을 통해 향상된 의사소통능력이 집단활동을 통한 수업의 효과와 함께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향상 또한 수업을 통해 실제 대인관계를 이루고 의사소통 기술을 반복하여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자신감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집단활동을 적용한 의사소통 교과목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이었다[4]. 자기효능감 향상은 수행능력과 성취를 높이는 데 작용할 수 있고[18],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과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18-2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온라인 의사소통 수업은 간호대학생들이 자기이해를 넓히고 의사소통 기술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에서

각각의 긍정적 변화는 다시 다른 변수의 변화에도 작용할 수 있어 수업의 결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호교육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수업을 구성하여 제시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020년도에는 급작스러운 감염병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대학 전공교과목마저 대면 상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간호대학생 대상의 의사소통 교과목을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수강생들의 의사소통 교과목 학습목표 및 학습성과의 달성과 향상을 위해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추가하여 수업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수업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관리 시스템 기반의 해당 도구들을 수업 내용별로 달리하여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대면수업 방식으로 진행한 의사소통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3,4].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의 향상은 추후에 간호실무 및 임상적응과 관련한 간호사로서의 역량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5-9], 해당 교과목은 온라인 수업방식을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향후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학생들의 학습성과 성취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접목해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과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하브루타 교수법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고[1,6], 해결중심 집단상담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켰다[21].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교과목에 적합한 교수법을 도입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학습성과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현재 간호교육에서 E-러닝(Electronic learning; 전자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이어져오고 있는 실정이며[22], 온라인 실시간 수업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실시간 화상수업도 대면수업과 같이 유의한 학습성과 향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온라인 방식의 수업은 간호교육에 필요한 시도였으며, 해당 교과목의 학습목표 달성과 학습성과 향상에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는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욱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교수법 활용과 의사소통 수업의 효과성 측정에 관한 연구

에서 설계를 비롯한 여러 연구방법의 발전을 제안하였다[2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신 경향에 따른 수업방법을 적용하였으나, 대조군 없이 단일군 전후설계로 연구를 진행하여 효과성 측정과 관련한 연구설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학 전공교과목의 온라인 수업 운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수업의 보완·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교육기관의 학부과정 교과목의 온라인 방식 수업 운영은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하여 준비과정이나 누적된 경험 없이 2020년에 대부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파악한 각 요소를 반영하여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온라인 수업에 관한 연구에서 화상회의를 이용한 실시간 수업은 교수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즉각적인 피드백과 질의응답 등이 가능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 및 학습몰입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 평가하였다[10]. 다른 연구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강의 집중도가 낮게 조사되었으나, 강의 이해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수업 중 온라인 문자채팅을 병행할 수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였지만, 양측 모두 사후에 상호작용이 제한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24]. 실시간 온라인 수업 수강생들에게서 수업 참여의 효능감 중 접근성은 높게, 상호작용은 낮게 나타나 수업 내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2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 시청으로만 구성된 비동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학습자신감, 적극적 학습태도, 강의 만족도, 강의몰입을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수강학생들에 대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강의에 몰입하는 것을 도와야한다고 강조하였다[26].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 대상의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수업에서는 사전에 수강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미리 파악하여 수업진행 방식에 반영하고, 강의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수업 중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충분한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하며, 상호작용 통로로서 효율적인 방식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의사소통 교과목의 학습성과 향상을 위해 추후 내용 구성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창의수업으로, 이 방법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자신의 창의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을 기반으로 창의적 사고기법을 학습하고 연습, 토론 및 체험 등을 통해 학습내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학생 대상의 온라인 창의 수업은 창의적 성격과 자아개념 향상에 효과적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수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함양되었다고 해석하였다[27]. 두 번째 사례는 저널쓰기로, 이 방법은 유아교육과 1학년 대상의 온라인 공감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이다. 이 수업을 실시한 후 대상자들의 공감능력이 향상되었는데, 교육내용은 공감의 이해와 적용,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로 구성되었다. 수업의 내용과 운영과정에서 본 연구의 온라인 의사소통 수업과 유사점이 많았는데, 특히 눈에겨볼 점은 교수방법에 저널쓰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저널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이 공감의 정서적·인지적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저널쓰기는 학생들이 매 수업이 끝난 후 수업시간을 통해 공감에 관하여 배운 점, 느낀 점을 회상하고 이와 함께 실천할 점들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이 연구에서는 저널쓰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감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28].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공감능력은 간호사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로, 임상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29]. 간호현장 및 사회에서 요구하는 간호인재 양성을 위해 온라인 의사소통 교과목에 창의수업 및 저널쓰기를 도입하여 간호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의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팬데믹(Pandemic) 이래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 무력감이 완화되지 못했다. 반면에 대학생들이 주변과 소통하려는 이용동기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얻으면 외로움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0]. 이 결과를 간호대학생에게 반영하여 지속되는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교수는 전공수업 또는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높여 사회적 지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군 전후설계로 타당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미흡하므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는 일개 대학의 1학년 간호

대학생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질적이지 않은 대조군을 두고 외생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통제하여 연구설계를 보완하고,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G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1학년 재학생 중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96명을 대상으로, 해당 교과목의 수강 전·후에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정도를 측정하여 교과목 수강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해당 교과목은 G사의 수업관리 전용 시스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화상회의, 녹화영상 시청 및 설문지 도구를 이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강의와 워크숍의 교수법 이외에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포함하여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각 수업 시간은 매주 100분이었고 총 13회의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였다. 첫 수업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13회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BM SPSS 25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교과목을 수강한 후에 연구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점수가 수강 전보다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기반의 역할극과 집단활동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과목 수업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대학의 전공수업이 비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 대상의 의사소통 교과목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 Ha & H. Lee. (2020).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Competency,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31(3), 337-347. DOI : 10.12799/jkachn.2020.31.3.337
- [2] B. Kim, S. Y. Lee, G. J. An, G. Lee & H. J. Yun. (2019).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on Job Satisfaction in Hospital Nurs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4(2), 189-197. DOI : 10.21032/jhis.2019.44.2.189
- [3] M. R. Lee & Y. K. Kwag. (2016). The Effects of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4), 181-190. DOI : 10.14257/AJMAHS.2016.04.06
- [4] E. J. Bong. (2013).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Curriculum were utilized Group Activit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Self-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0), 394-402. DOI : 10.5392/JKCA.2013.13.10.394
- [5] Y. Seo. (2020).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Engagement, Communication Ability, and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College of Life Adaption.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4(4), 45-67. DOI : 10.18015/edumca.14.4.202011.045
- [6] M. S. Song & I. S. Lee. (2020). The Effects of Club Activities on Communication Skills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8), 485-494. DOI : 10.5762/KAIS.2020.21.8.485
- [7] J. K. Kim, W. J. Kim & S. J. Lee. (2020). Correlation of Self-Efficac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7), 120-126. DOI : 10.5762/KAIS.2020.21.7.120
- [8] J. H. Song & H. J. Kim. (2020).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Incivility, Career identity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9), 102-110. DOI : 10.22156/CS4SMB.2020.10.09.102
- [9] M. Lim. (2020).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Person Centered Car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8(3), 35-43. DOI : 10.22678/JIC.2020.18.3.035
- [10] J. Kim, K. Sohn, E. Lee, J. Jeong, H. Jang & W. Lee. (2020). The Effects of Interaction Between Instructor-Student and Student-Student on Learning Achievement in Synchronous E-learning for Major Classe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Learning Flow.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2(3), 25-48.
- [11] K. H. Hur. (2003).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80-408.
- [12] M. Sherer, J. E. Maddux, M.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 R. W. Rogers. (1982). The Self 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51, 663-671.
DOI : 10.2466/pr0.1982.51.2.663
- [13] A. S. Jung.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a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Self-efficacy in General Hospital nurs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4] B. G. Guernsey. (1977).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 Training Programs for Therapy*. San Francisco: Jossey-Bass.
- [15] H. S. Chang. (2007). *The Association between Self-Esteem, Relationship Style, and Etiquette Implementation in Adolescence*.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16] Y. S. Park, S. B. Im & H. S. Kim. (2009). The Effects of Reinforced Self-understanding in Nursing Communication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3), 361-368.
- [17] H. S. Jeong & K. L. Lee. (2012).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5), 2635-2647.
- [18] M. O. Kim (2016). Study on Self-efficacy, Communication Competen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6), 609-617.
DOI : 10.5762/KAIS.2016.17.6.609
- [19] Y. S. Lee, S. H. Park & J. K. Kim. (2014). Nursing Student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6), 229-240.
DOI : 10.5392/JKCA.2014.14.06.229
- [20] H. W. Kwak & S. W. Hwang. (2017).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Focus on a Four-year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239-249.
DOI : 10.14400/JDC.2017.15.2.239
- [21] S. H. Park & H. K. Yu. (2018). The Development of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2), 195-209.
- [22] D. Button, A. Harrington & I. Belan. (2014). E-learning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 Nursing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Nurse Education Today*, 34(10), 1311-1323.
DOI : 10.1016/j.nedt.2013.05.002
- [23] M. S. Grant & L. S. Jenkins. (2014). Communication Education for Pre-licensure Nursing Students: Literature Review 2002-2013. *Nurse Education Today*, 34(11), 1375-1381.
DOI : 10.1016/j.nedt.2014.07.009
- [24] J. Ahn & J. H. Park. (2020). Online English-medium Instruction: a Case Study of a Business Course at Univers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4(4), 81-109.
DOI : 10.16933/sfle.2020.34.4.81
- [25] J. Baek. (2020). University Students' Efficacy in Real-time Online Class as Alternative Methodology due to Corona Virus(COVID-19) Ev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1), 539-545.
DOI : 10.14400/JDC.2020.18.11.539
- [26] E. Y. Choi, J. Y. Yun & S. Y. Park. (2020). Factors Influencing the Other Behaviors Taken by Nursing Student during Online Lectur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9), 433-441.
DOI : 10.15207/JKCS.2020.11.9.433
- [27] K. H. Lee & C. Y. Kim. (2017). The Effect of On-line Creativity Class on Promotion of Creative Personality and Self-concep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1), 33-64.
DOI : 10.24159/joec.2017.23.1.33
- [28] K. H. Ko & E. S. Jung (2020). The Effect of Cultivating Empathy Abilit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an "Empathy Ability in Educational Settings" Cours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5), 951-969.
DOI : 10.24159/joec.2020.26.5.951
- [29] K. S. Jang, N. Y. Kim & H. Y. Park. (2014). Effects of an Action Learning Based Creative Problem-Solving Cours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5), 587-597.
DOI : 10.11111/jkana.2014.20.5.587
- [30] Y. J. Son & M. S. Heo. (2020). A Study on Social Media Usage, Helplessness, and Loneliness Experienced by College Students since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11), 1957-1971.
DOI : 10.9728/dcs.2020.21.11.1957

최 명 희(Myeong-Hui Choe)

[정회원]



- 2002년 2월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석사)
- 2017년 8월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간호교육, 환경호르몬
- E-Mail : mhchoi@uu.ac.kr